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3. 11. 2.(목) 11:00 < 11.3.(금) 조간 > 배포 2023. 11. 2.(목)

인도·아세안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자유무역협정(FTA) 개선방향 모색

- 산업부·국제통상학회 공동「제3차 신 자유무역협정 전략토론회(포럼)」

역동적으로 성장 중인 세계 1위의 인구 대국 인도 및 세계 5위 경제권인 아세안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 개선 협상 전략 수립이 가속화된다.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방문규, 이하 산업부)는 11. 2.(목)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인도 및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 개선 쟁점(이슈)을 점검하고 협상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제3차 신 자유무역협정 전략토론회(포럼)를 개최하였다.

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은 '10년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 확대('09년 121억 불 → '22년 277억 불, 약 2.3배)에 크게 이바지해 왔으나, 비교적 낮은 자유화 수준(인도 측 품목 기준 67.9%, 수입액 기준 66.6%)을 고려 시 시장개방의 수준을 높여나갈 여지가 크다.

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 또한 '07년 발효 이후 교역 규모를 3배 이상 확대하며('06년 610억 불 → '22년 2,074억 불) 아세안이 우리의 제2 교역 동반자(파트너)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해 왔으며, 디지털 등 새롭게 등장하는 규범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자유무역협정을 상향 조정(업그레이드)할 필요가 있다.

송백훈 국제통상학회장은 "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은 상품·서비스 분야 시장개방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, 인력이동 확대 등 인도 측의 새로운 관심 사항을 고려하여 자세히 대응할 필요"가 있으며, "한-아세안 자유무역협정 또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 발효 등 변화된 통상 환경을 고려하여 개선 협상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."라고 강조하였다.

산업부는 오늘 토론회(포럼)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여 앞으로 인도,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 개선 협상 전략 수립에 참고하는 한편, 우리 산업계 및 이해관계자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통상교섭실 FTA 정책기획과	책임자	과 장	박정미 (044-203-5740)
		담당자	사무관	박용균 (044-203-5742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